산업통상자원부 **보 도 자 료**

http://www.motie.go.kr

2016년 4월 11일(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4.11.(월) 오전 6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6. 4. 8. (금)	담당부서	산업기술정책과
담당과장	천영길 과장 (044-203-4510)	담 당 자	주세형 사무관(044-203-4512) 정상봉 사무관(044-203-4504)

10년 후 우리 산업의 미래를 준비한다

- 「신산업 민관협의회」 발족 및 1차 회의 개최 -

◇ 신산업분야 대표 33인이 **미래 우리산업이 나아가야할 청사진 제시**

◇ 주형환 장관, "각계 **민간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미래산업의 새로운 트렌트를 파악**하고, 신산업 **기회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색**하여 정부와 기업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야"

◇ 박용만 회장, "신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은 **창조와 혁신을 통한 핵심 역량 강화**에,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 혁파**에 주력해야"

개최 배경 및 행사 개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주력산업의 현황을 진단하고, 우리 산업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4월 11일(월) 오전 8시 서울 벨레상스 호텔에서 **신산업 민관협의회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음

□ 신산업 민관협의회는 **주력산업의 성장이 정체**되고, 기존 글로벌 산업 판도를 뒤바꿀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 **5~10년 후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우리 산업이 나아갈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민관 공동 논의의 장**임

○ 동 협의회는 **주 장관**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공동의장**을 맡았으며, 산업, 기술, 연령, 학제, 기업규모 등 **각계각층 대표들 33인**으로 구성(신산업 민관협의회 구성: 붙임 2 참조)

주형환 산업부 장관 주요 발언

□ 주 장관은 수출활력 회복을 위해 산업단지 수출 카라반, 소비재 수출 대책 수립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보다 근본적으로 새로운 먹거리와 대체 수출주력 품목 발굴이 필요**함을 강조

○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미래 먹거리 분야를 가장 잘 아는 **민간이 주도적으로 투자**하고, **정부는 과감한 규제개선, 총력지원, 기업간 융합얼라이언스를 위한 플랫폼을 지원**해 나갈 것임

□ 다만, 기업이 미래 게임체인저 산업을 놓칠 수 있으므로,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경제·금융·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 **미래의 새로운 트렌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산업의 기회가 어디에 있는 지**를 모색하면서, **정부와 기업이 대응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필요

< 신산업의 주요 특성(예시) >

① **게임 체인저**(IoT, AI, 빅데이터 등) : 기존 산업 생태계를 통째로 바꾸면서 전후방 산업 및 他산업에 큰 파급효과를 미치는 분야

② **네트워크**(에너지, 통신, 플랫폼 등) : 한번 구축되면 사용자 추가에 따른 한계비용이 거의 없고, 락인(Lock-in) 효과가 높은 분야

③ **비교우위 보유**(한류, 의약·바이오 등) : 세계적인 콘텐츠 보유(한류), 우수 인력 보유(의약·바이오) 등 우리 사회가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

④ **프리미어(Premier) 전략**(차세대 반도체, OLED 등) : 주력산업에 ICT, 서비스, 문화 등을 융합하여 고도화 또는 명품화할 수 있는 분야

try of Trade
try and Energy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6-04-11 14:12:09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주요 발언

□ 한편, 공동의장인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현재 **세계는 신산업 육성 및 신시장 선점을 위해 치열한 경쟁**속에 있으며, 우리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을 강조

○ 이를 위해 **기업**은 창조와 혁신을 통해 **신기술과 신시장을 개척하고,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 **정부**는 최근 규제개혁장관회의와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개혁하는 것이 필요**함을 주장

주요 발제 내용

□ 이날 회의에서는 신산업 동향 및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먼저 **베인&컴퍼니, 보스턴컨설팅그룹이** 발제하고,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이 이에 대해 **토론**을 벌였음

< ①보스턴컨설팅그룹 : 제4차 산업혁명 물결 - 한국경제의 시사점 >

□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제4차 산업혁명의 물결: 한국 경제의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제4차 산업혁명이 기존의 변화와 무엇이 다른지 진단**

○ BCG는 GE와 SAP 등 이미 4차 산업혁명의 물결에 합류해 유의미한 수익을 창출해내기 시작한 선진 기업들의 사례를 소개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 9대 기술을 제시**

* ①빅데이터와 분석, ②자동화 로봇, ③시뮬레이션, ④수평·수직적 소프트웨어 통합, ⑤산업인터넷, ⑥사이버 보안, ⑦클라우드, ⑧3D 프린팅등 적층 가공, ⑨증강현실

○ 또한, "이들 여러 기술들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끌 기반 요소들이지만 이들 각각의 요소보다 **그 조합이 만들어낼 임팩트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

□ 이어 한국형 4차 산업혁명은 **개별기업과 산업, 정부 등 3대 주체가 함께 견인해나갈 과제**임을 강조

< ② 베인&컴퍼니 : 산업의 생성과 진화, 변화혁신 - 글로벌 모범사례의 시사점 >

□ 베인&컴퍼니는 "산업의 생성과 진화, 변화혁신-글로벌 모범사례의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급변하는 사회에 대응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 상부가 총괄 지휘하는 Top-Down 방식도 효과가 뛰어나지만 **혁신이나 변화는 하부에서 촉발됨을 강조**하며, 최근 혁신적인 성과를 보였던 온라인 산업을 중심으로 **혁신 사례를 소개**

try of Trade,
try and Energy

【 온라인 산업의 혁신 사례 】

- **(구글)** 사업모델을 자체적으로 육성하는 대신, 적합한 모델을 외부로부터 도입하는 등 개방형 혁신과 M&A전략 구사
- **(아마존)** 핵심역량을 활용, 기존 제품 및 서비스 군에서 인접사업으로 확장
- **(다음 카카오)** 통합 컨텐츠 플랫폼 구축 및 이를 활용한 사업 기회 모색
- **(노키아)** 외부 변화에 대응하여 잘 나가던 기존 사업의 악화에 굴하지 않고, 유망 신사업을 주력사업으로 삼아 사업적 변이를 반복함

< ③ 참석 전문가 주요 논의 사항 >

□ KDI 김준경 원장은 **'신산업 민관협의회'**가 진정한 **public-private partnership**을 통해,

○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의 **융합, 성장 동력의 회복** 및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방향을 시급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언급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6-04-11 14:12:09

□ 금번 회의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는 바이오·헬스, 문화·컨텐츠 등 미래 유망 산업 후보군을 언급하면서,

○ 단순히 개별 컨텐츠나 기술에 집중하기보다 이에 대한 **플랫폼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고,

○ 융합적 사고와 창의성을 가진 **인재육성이 필요**함을 강조

【 참석자 주요 발언 내용 】

- **성균관대 최재붕 교수 :**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소비자와 소통하는 기업(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이 빠른 속도로 성장한 반면, 이를 무시하고 기존 기술 중시 전략을 편 기업(노키아, 모토로라 등)은 어려운 상황에 처함
- **KIAST 이상엽 교수 :** 사이버-물리-생물 시스템 등 경계없이 융합되는 창의적 융합산업과 융합적 사고를 가진 인재 육성이 필요하며 또한 국민의 지속적인 자기계발과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평생교육분야 혁신이 요구

신산업 민관협의회 향후 운영계획

□ 산업부는 신산업 민관협의회를 분기마다 개최하고, 금년 12월까지 **미래 산업의 전망과 향후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동 협의회를 통해 발표할 계획

○ 이를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을 중심으로**, 유망 신산업별 **실무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미래 신산업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

※ 붙임 1. 신산업 민관협의회 개최 계획
2. 신산업 민관협의회 위원 명단
3. 신산업 민관협의회 운영 계획
4. 산업부 장관 모두발언 전문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주세형 사무관(044-203-4512), 정상봉 사무관(044-203-450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신산업 민관협의회 개최 계획

□ 개최 목적

○ 향후 5~1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시계(時界)**에서 글로벌 산업 전망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신산업 창출 방안 논의**

⇨ **금년 활동결과를 보고서로 대외 발표**

□ 협의회 개요

○ **일시 : 4.11일(월), 08:00~10:00 (조찬)**

○ **장소 : 벨레상스 서울호텔(舊르네상스호텔) 3층 다이아몬드볼룸 I**

○ **참석자**: 기업·연구소 대표 또는 임원, 교수, 언론인 등 33인

- **(공동의장)** 장관님, 대한상의 회장
  * 간사: 산업기반실장
- **(잠석위원)** KDI, 컨설팅社, 언론 등 **거시·인문사회**, 바이오, AI 등 **신산업, 대·중소·벤처기업** 등 **분야별·연령별 전문가**
  * 위원명단 별첨

□ 진행 순서

시 간	내 용	비고
08:00~08:07	·개회 및 기념촬영	기술국장
08:07~08:17	·인사말씀	산업부 장관 상의 회장
08:17~08:20	·협의회 운영계획 발표	기술국장
08:20~08:35	·(발제1) 산업의 생성과 진화, 변화혁신-글로벌 모범사례의 시사점	베인&컴퍼니
08:35~08:50	·(발제2) 제4차 산업혁명 물결: 한국경제에 시사점	BCG
08:50~09:57	·토론	참석자
09:57~10:00	·마무리 말씀	장관님

try of Trade, try and Energy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6-04-11 14:12:09

붙임 2 신산업 민관협의회 위원 명단

구 분		소 속	성 명	직 위
의장(2명)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장관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
거시 및 인문사회 전문가 (8명)	경제	KDI	김준경	원장
	컨설팅	베인&컴퍼니 코리아	이성용	대표
		맥킨지 서울사무소	최원식	대표
		BCG 서울사무소	이병남	대표
		골드만삭스	권구훈	전무
	금융	한앤컴퍼니	한상원	사장
		삼성증권	윤용암	대표
	언론	한국경제신문	안현실	논설위원
신산업 분야 (13명)	ICT융합	산업융합옴부즈만	이주연	옴부즈만
	빅데이터	네이버	김상헌	대표
	AI	서울대학교	장병탁	교수
	바이오의료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이철희	병원장
	고급소비재	아모레퍼시픽	심상배	사장
	자율주행차	한양대학교	선우명호	교수
	항공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조광래	원장
	IOT	성균관대학교	최재붕	교수
	바이오	KAIST	이상엽	교수
	에너지신산업	LS산전	구자균	회장
	문화	SM엔터테인먼트	김영민	대표
		CJ E&M	김성수	대표
	온라인유통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이상규	회장
기업규모별 (10명)	대기업	삼성전자	권오현	부회장
		현대자동차	권문식	부회장
		SK텔레콤・하이닉스	임형규	부회장
		LG화학	박진수	부회장
	중견기업	한미약품	이관순	사장
		루멘스	유태경	회장
		컴투스・게임빌	송병준	대표
	벤처・중소기업	벤처기업협회	정준	회장
		에스엔에스에너지	김찬호	대표
		아이센스	남학현	사장

붙임 3 신산업 민관협의회 운영계획

1. 추진 배경

□ **(주력산업)**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세계 11위 수준으로 성장했으나, **동북아 분업구조 변화, 중국의 기술 추격** 등으로 **주력산업 위기 직면**

* 동북아 분업구조: (日)부품·소재 (韓)중간재 (中)최종재 → 全 분야 경쟁심화
* 韓中 기술격차(년, KISTEP): ('08) 2.7 → ('14) 1.4

□ **(신산업)** 반도체, 휴대폰 등 기존 주력산업을 보완 또는 대체할 **신산업의 등장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 10대 수출품목 신규진입 수(개): ('85→'95) 4, ('95→'05) 3, ('05→'15) 2

⇨ 향후 5~1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시계(時界)**에서 **글로벌 산업 전망**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신산업 창출 방안 논의**

* '16년 ViP 업무보고(1.18),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2.17)에서 '신산업 민관협의회' 설치 계획을 발표

try of Trade,
try and Energy

2. 구성 및 운영방안

□ **구성 (총 33명)**

○ **(공동의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대한상의 회장

○ **(위원)** 제조·서비스(문화·의료·유통 등)·거시경제·언론 등 다양한 분야·연령별 **국내 최고 전문가 및 오피니언리더로 구성**

- **글로벌 컨설팅사, 거시경제연구소, 금융사 등**을 통해 미래 산업 트랜드의 동향・분석
- AI, IoT, 바이오, 에너지신산업 등 **유망 신산업 분야별 최고 전문가**들이 신산업 현황 및 전망
- **대・중소・벤처 기업 등 업계**의 신산업 진출 방향 및 대응 전략 등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6-04-11 14:12:09

□ 기능

○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신산업 정책 자문기구**로서 기능을 수행

- 정부에 **정책방향을 제언**하고, **미래 산업전망과 정책 방향 메시지를 대외에 제시**하는 통로 역할

□ 운영

○ **(개최시기)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수시 개최**

○ **(목표)** 협의회를 통해 논의된 사항, 활동결과 등을 종합·정리하여 **보고서로 대외 발표**

- **(추진체계) KDI**가 **외부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료 작성을 총괄**하고, 필요시 협의회 內 실무위원회*를 설치하여 세부 사항 논의

* (실무위원회) 협의회 위원 추천을 받은 실무자로 구성, KDI가 구성한 외부 전문가 위원회에 참여하여 세부 사항 논의 등 작업 수행

< **보고서 주요 내용** >

◇ 가칭『글로벌 산업지형 변화와 대응전략』

- 5~10년 후 글로벌 산업 트렌드 변화와 게임 체인저
- 산업 변화에 대한 선진국 정부와 기업의 대응현황 및 전략
- 우리 정부와 기업의 대응전략 제언

3. 향후 계획

□ **차기 협의회**에서 **KDI 초안을 발표, 보완 사항 등을 논의**('16.7월)하고, **차차기 협의회**에서 **수정안 공유 및 재논의**('16.10월)

○ **연말** 협의회 개최 시 **보고서 대외 발표**('16.12월)

붙임 4 **산업부 장관 모두발언 전문**

1. 인사 말씀

반갑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취임 이후 3개월 간 많은 간담회를 했지만
이번만큼 전문가 섭외에 심사숙고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이 자리에 모신 분들이
우연히도 모두 서른 세분인데, 민족대표 33인 처럼
신산업 각계 전문가 33인 여러분에게 거는 기대가 큽니다.

2. 회의 개최배경

세계 경기부진, 저유가와 낮은 수출단가의 지속 등
부정적 여건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수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3월 들어 무선통신기기와 철강 수출의 증가로
4개월만에 수출 감소율이 한 자리수(△8.2%)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수출을 둘러싼 대외여건을 감안할 때
수출회복세로 진입했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수출을 계속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6-04-11 14:12:09

저는 취임이후 수출활력 회복을 위해
산업단지 수출 카라반 행사와 소비재 수출 대책 수립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지난 주 대통령을 모시고 미국과 멕시코를 방문하여
우리 크라우드 펀딩기업이
미국과 화장품 수출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원하고,
멕시코와도 경제, 통상, 에너지 등
다양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유망소비재 수출과 수출시장 다변화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미래 신산업을 창출하여
새로운 먹거리와 대체 수출품목을
찾아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경제포럼은 현재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의 65%가
지금 존재하지 않는 직업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실감도 안 되고, 한편으로는 충격적인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산업과 기술의 변화는
늘 우리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최근 인공지능의 발전수준도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모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새로운 이슈가 등장할 때마다 대응책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5~10년후 미래산업 트렌드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전망을 통해
새로운 산업 정책의 틀을 미리 준비하려고 합니다.

저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이 협의회를 미래 산업전망과 정책방향 메시지를
국민들께 제시하는 통로로 만들 계획입니다.

3. 신산업 지원방향

지난 2월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신산업분야에 대한 지원방향을 발표한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미래 먹거리 분야를 가장 잘 아는
민간이 중심이 되어 신산업 투자를 주도해 나가고,

정부는 민간의 신산업 투자가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심사를 통한 과감한 규제완화
▲ R&D, 인력, 세제 등 총력지원과 함께
▲ 기업간 융합 얼라이언스를 위한 플랫폼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만, 기업이 미래 체인저 산업을 놓칠 수 있으므로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경제 · 금융 · 문화 등 다양한
민간의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미래의 새로운 트렌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산업의 기회가 어디에 있는 지를 모색하면서
정부와 기업이 대응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서
제 소견을 간략히 먼저 말씀드리자면,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6-04-11 14:12:09

FTA와 TPP 등 다자간 협상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이 단일화되고 있는 오늘날에는
남들보다 빠르게 앞서나갈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이렇게 달성한 First Mover의 이익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분야는 크게 네가지 특성(Nature)으로
예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되는 분야입니다.

최근, 사물인터넷이나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있는 기술들은
기존 산업생태계를 통째로 바꾸면서,
전후방 산업과 타 산업으로 커다란 파급효과를 미칩니다.

둘째, 네트워크 특성을 가진 분야입니다.
네트워크는 일단 구축되면 사용자 추가에 따른
한계비용이 거의 제로에 가깝고,
사용자들이 일단 몰리는 곳으로
더 집중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번 참여한 사용자는 충성도가 높아
쉽게 다른 네트워크로 바꾸지 않는
락인(lock-in)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에너지나 통신, 플랫폼 등이 그 예가 될 것입니다.

셋째, 우리 사회가 보유한 비교우위 요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우리가 고유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세계적인 콘텐츠로 자리잡고 있는 한류,
전국의 수재들이 몰려드는 의약·바이오,
프로세스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응용산업 분야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주력산업이라 하더라도
프리미어(premier) 전략을 적용한 분야입니다.

주력산업에 ICT, 서비스와 문화를 융합하여
고도화 또는 명품화 함으로써
기존 시장의 점유율을
유지하거나 확대할 수 있는 분야로서
차세대 반도체, OLED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try of Trade,
try and Energy

이러한 분야는 지난 2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우리 기업이 투자하려는 신산업 영역과
거의 일치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각계 전문가분들께서
추가적으로 귀한 말씀을 주시면
이를 종합하여 5~10년후 우리가 가야 할
신산업의 청사진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6-04-11 14:12:09

4. 맺음 말씀

우리나라의 산업발전 과정을 돌이켜 보면
우리는 늘 남보다 늦게 시작하였지만
남보다 더 크게 이루었던 경험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60년대 섬유, 가발에서 시작해
70~80년대 기계, 전자, 조선 등 중화학공업,
90년대 후반 이후 IT 산업에 이르기까지

다른 나라보다 늦게 시작하여
빠르게 선진국을 추격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초연결성, 인공지능, 융합 등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남들보다 빠르게 앞서 나가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 남과 같이 보았더라도 빨리 앞서 나가고
▲ 빨리 가서 획득한 이익을 계속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글로벌 선점경쟁이 심한 신산업 분야에서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선 등을 통해
민관이 힘과 지혜를 모은다면
우리에게도 밝은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5 주요 발제 내용

발제1 산업의 생성과 진화, 변화혁신-글로벌 모범사례의 시사점[베인&컴퍼니]

□ 신산업 육성을 위해 학계, 정부, 민간의 단합된 노력과 빠른 성과 창출을 위해 **집중(Focus), 도약(Jump), 영감(Inspire)의 3대 주제 6개의 주요 실천 과제가 필요**



□ 혁신이나 변화는 Top-down 보다 Bottom-up에서 촉발되므로 **하나의 회사가 변화의 시발점**이 됨. **혁신과 변화를 추구하는 글로벌 사례를 통해 시사점 도출**

- ○ **M&A play** : 회사에 적합한 모델을 외부로부터 도입하는 전략(사례: 구글)
- ○ **Core competency play** : 기존 제품 및 서비스 군에서 인접 사업으로 확장(사례: 아마존)
- ○ **Platform play** : 통합 컨텐츠 플랫폼 구축 및 이를 활용한 사업 기회 모색(사례: 다음카카오)
- ○ **Migration play** :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사업 영역을 주력으로 삼아 사업적 변이 (사례: 노키아)
- ○ **Disruption (opportunistic) play** : 미래 유망 기술과 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과감한 투자 (사례: 핀테크)

try of Trade,
try and Energy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6-04-11 14:12:09

발제2 제4차 산업혁명 물결: 한국경제에 시사점(BCG)

○ **제4차 산업혁명은 미래 트랜드에 대한 게임 체인저**인가?
(기존의 공장자동화와 다른점을 진단)

- 클라우드, 빅데이터, 자동화 로봇 등은 제4차 산업혁명을 구성하는 기반 요소들을 조합하여 만들어낼 임팩트가 필요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9대 혁신 기술**을 제시 : ① 빅데이터와 분석 ②자동화 로봇 ③시뮬레이션 ④수평·수직적 소프트웨어 통합 ⑤산업인터넷 ⑥사이버 보안 ⑦클라우드 ⑧3D프린트와 같은 적층가공 ⑨증강현실

○ **유의미한 수익 모델 창출이 가능**한가?

- 데이터 플랫폼과 분석·어플리케이션과 솔루션·하드웨어 등을 통한 플레이어(GE, SAP 등) 수익창출 사례

* GE : 산업용 IoT 기반 디지털화 트렌드를 주도, 신규 서비스 오퍼링 및 사업기회를 발굴(광산업, 소매유통 등 비전통 확대)

○ **선진사례를 통해 우리(기업, 산업계, 정부)의 대응전략**

- 대내외 어려운 환경*을 돌파하기 위해 **신산업을 통한 활로를 모색하는게 필요**

* (내부)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 제조업의 공동화 심화, 주력산업의 정체 등
(외부) 세일가스를 기반으로 한 미국 제조업의 부활, 중국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진화, 선진국과의 전자, 나노, 항공 등 기술격차 등

- 한국형 제4차 산업혁명은 **개별기업, 산업, 정부 등 3대 주체가 함께 견인**해 나갈 과제

◇ **(개별 기업)** 비즈니스 니즈를 고려한 기술 도입을 추진
◇ **(산업계)** 가치사슬 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방향을 모색
◇ **(정부)** 경제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성과 인프라를 제공